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7월 1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보는 신령한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 경 남 -

저의 아버지는 집안의 장남이셨고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큰집인 저희 집에 일가친척이 모여서 치르는 집안행사 때는 아버지의 동생인 두 분 삼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삼촌들을 아버지가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두 작은아버지는 나중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저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때마다 어린 제 마음이 감동되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저의 몸이 약하여 자주 지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몸이 힘들 때는 도피처를 찾듯이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의왕시 포일동에 새집을 지어 이사한 후, 같은 동네에 사는 구역장님의 인도로 은혜와진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조용목 목사님을 뵈니 무척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전에 서울에 살 때 자주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배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 말씀해 주실 때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자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던 저와 작은 아들이 신기하게도 함께 건강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우리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여 잠언서 강해 설교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느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감동하여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의 시간,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의 강해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역사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되니 그 받는 은혜와 감동을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보배롭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느 날, 친한 권사님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당일 아침에 금식을 한 후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검사 등 다른 과목 진료를 받은 데 이어, 위내시경과 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장에 매우 큰 용종이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제거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기된 얼굴로 이같이 말씀하는 순간 적잖게 놀랐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동안 돈만 내며 묵혀둔 보험증서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준 자료(CD)를 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종합병원의 잘 아는 의사선생님에게 연락해 놓겠다면서 가서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 예약을 하고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저와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는 무렵이었지만 남편 집사님과 함께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 날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예약된 날에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조직검사 결과 용종속에 암세포가 있었다며 초기암 진단을 내리고는, 그렇지만 용종을 제거하면서 그 주변까지 잘 치료하였으니 크게 염려하지 말라며 2,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신유의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곧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선종을 포함한 용종 8개를 제거하였고 암세포가 있던 부위가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째 검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며 천국가는 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최근에 전도한 자매님이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여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를 따라다니듯 권면하는 대로 순종하여 교회의 예배와 구역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더니, 만나실 봉사까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가만히 눈에서 눈물을 흘리길래 왜 그런지 물었더니,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극되어 절로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 자매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주고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반석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크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5) 은혜와진리교회의 권사로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6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 찬송 : 507장(새찬송가 455장), 516장(새찬송가 427장)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에 되도록이면 창가에 자리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는 차창에 펼쳐지는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는 차창을 통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을 하노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차를 탈지라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약한 좌석의 차창에 때가 끼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되어 짜증나고 피곤한 여행이 되고 말겠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창이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주님의 세계를 보고 즐길 수 있겠지만, 혹시 마음의 창이 더럽혀져 있다면 보이는 것이라곤 죄악되고 답답한 세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팔복의 여섯째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시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그곳에 지성, 감정, 의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시 119:113)라고 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씁니다. 둘째로, 일부러 꾸미거나 속이려 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위선과 허세를 멀리하며, 외적인 행실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살펴서 거짓없는 신앙 양심을 갖고자 애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몸짓에 불과했으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 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마 23:25~26)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딤후 1:5)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결한 마음은 교육이나 수양이나 선행과 같은 인격적인 노력으로 가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라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보혈로써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같은 씻음을 일컬어 ‘중생의 씻음’(딤후 3:5)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라도 아직 부패한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어 마음이 추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 119:9) 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악한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0~11)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를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딤후 6:16)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느낍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뵈게 될 것입니다(계 22:4).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는 말씀과 같이, 그 날에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뵈고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뵈우고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의왕시 까치굴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